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14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물밑 협상 기대에 미국 증시 상승 마감

- 미국증시 주요 지수 상승: 나스닥 +1.23%, 다우 +0.63%
- 트럼프 "이란 협상 원하고 있다"..국제유가 상승폭 축소
- 블랙록 "전쟁 영향 제한적, 미국 주식 전망 상향"

Summary

미국증시 하락 출발 후 반등

4월 13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 주말 사이 전해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소식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부담으로 반영해 하락 출발했지만 장 중 결국은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며 상승폭을 확대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63% 상승한 48,218.25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02% 상승한 6,886.24에 마감함. 나스닥 지수는 1.23%상승한 23,183.74에 거래를 마쳤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1.52% 상승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장 초반 20선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이후내내 안정되는 흐름으로 0.57% 하락한 19.12에 마감.

(다우 +0.63%, 나스닥 +1.23%, S&P500 +1.02%, 러셀2000 +1.52%)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군이 예고했던 대로 현지시각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돌입. 이번 작전의 주요 목적은 이란의 자국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막아 자금 흐름을 봉쇄, 대이란 압박을 극대화하는 데 있음. 아울러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 해협 내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 이란은 미국이 실제 해상 봉쇄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군함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양측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협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 재발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 상황. 한편 국제 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는 어떤 국가도 국제 통행에 사용되는 국제 해협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고 밝힘. 그는 미국에 의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분쟁 완화가 정상적인 해운 운영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 안토니우 루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유엔의 '모든 당사국'은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

이란-미국, 물밑 협상 중?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에 돌입하며 고조되는 듯했던 양측의 긴장과 그로 인한 시장의 불안은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주말의 종전 협상 결렬에도 여전히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기대감에 다소 완화됨.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그들은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함.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파키스탄과 이집트, 터키 등의 중재국들이 남은 격차를 좁히고 휴전 종료 전에 종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CBS와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비슷한 결의 소식을 전함. 이에 상승하던 유가는 오름 폭을 축소했으며 국채 금리와 달러 역시 하향 안정. 주가 지수는 오름폭을 확대함.

OPEC 산유량, 코로나 이후 최대폭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지난 3월 회원국들의 석유 생산량이 하루 2080만 배럴로 전달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힘. 이는 코로나 19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보복으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해협을 통한 수출이 제한돼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선 것이 3월 산유량 급감으로 이어짐. 국가별로 보면 중동 2위 산유국 이라크의 하루 산유량이 전달 대비 61% 급감했고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생산량은 23% 감소함. 아랍에미리트(UAE)는 푸자이라 항을 통한 우회 수출에도 불구하고 45% 감소를 기록했으며 쿠웨이트의 산유량도 53.0% 줄었음.

미국 3월 주택거래 9월래 최저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는 전쟁의 영향으로 9개월래 최저를 기록.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398만건으로 집계돼 2월 대비 3.6% 감소. 1년 전과 비교하면 1.0% 감소. 이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 405만건도 하회하는 수치. 봄은 통상적으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성수기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고용 증가세 둔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 등이 시장 위축의 배경으로 작용. 특히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주택 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하며 주택 구매 여건이 악화했고, 높은 가격도 수요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란 전쟁 발발 이전 6% 아래로 내려갔던 주택 대출 금리는 전쟁 발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며 다시 6%를 상회. 국책 담보대출 업체 프레디 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30년 고정금리 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6.37%까지 상승함. 3월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4% 상승해 33개월째 오름세를 이었음.

블랙록, 미국 주식 전망 상향

시장이 전쟁 이슈로 인한 하락 압력으로부터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14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함. 블랙록은 주간 시장 노트를 통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한 단계 높임. 이는 그간 이란 전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데서 다소 전향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블랙록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보이는 협상에의 의지

를 감안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평가. 이에 따라 잠재적 피해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 여기에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반면 이 분야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블랙록은 미국 이외 신흥국 주식에 대한 위험 노출도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실적 시즌 핵심 변수로 기업들의 마진 방어력을 꼽음.

특징종목

기술주 강세: 반도체&소프트웨어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인 하루. 특히 반도체 등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돋보임.

브로드컴(+2.21%), 엔비디아(+0.3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42%), AMD(+0.73%), 웨스턴 디지털(+1.96%),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2.78%) 등의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8% 상승.

특히 인텔(+4.49%)과 샌디스크(+11.83%)의 상승세가 섹터 내에서 돋보였음.

인텔(+4.49%)이 3월 31일 이후 연일 상승 중. 이 날까지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이 기간 상승률은 60%에 달함. 이는 동일한 거래 기간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상승폭. 인텔은 4월 초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로부터 아일랜드 공장 지분 절반을 다시 사들이기로 합의해 경영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테라팹' 프로젝트에 참여해 테슬라, 스페이스엑스, xAI용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 여기에 알파벳이 데이터센터에 인텔의 차세대 제온 프로세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샌디스크(+11.83%)는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을 확정지으며 특히 크게 상승. 나스닥은 샌디스크를 지수 구성 종목에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편입은 오는 20일 시장 개장 전 공식 발효될 예정. 아틀라시언(+7.26%)은 지수에서 편출.

한편 최근 AI반도체주가 오르면 내리고 AI반도체주가 내리면 상승하는 시소 게임 양상을 보이던 소프트웨어 주식은 이 날은 동반 강세.

특히 오라클(+12.69%)이 두 자릿 수 급등세를 연출. 오라클은 현지시각 12일부터 14일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진행되는 '오라클 커스터머 엣지 서밋'에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신 기술들을 공개. 구체적으로 AI를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유틸리티 업체들이 적자에서 벗어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이외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존 사업모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지난주 13.4% 급락한 팔란티어 테크(+3.37%)가 반등했으며 어도비(+6.55%), 세일스포스(+4.76%), 서비스나우(+7.30%), 워크데이(+6.60%) 등도 큰 폭 상승.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가 사이버 보안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지난주 급락했던 팔로 앨토 네

트웍스(+4.35%), 옥타(+4.02%), 지스케일러(+3.87%),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6.13%) 등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도 강력한 상승세를 보임. 최근 메타, 앤트로픽과의 데이터센터 용량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급등했던 코어위브(+8.11%)가 이 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맥쿼리는 코어위브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도 90달러에서 125달러로 높임. 이외 네비우스(+6.62%), IREN(+9.54%), 어플라이드 디지털(+5.10%), 허트 8(+5.56%) 등도 동반 상승.

실적 발표 본격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1.87%)는 1분기 주식 트레이딩 부문과 인수합병 자문에서의 강세가 시장 기대 이상의 순이익으로 연결됐지만 이 날 거래에서 하락. 채권, 통화, 상품(FICC) 부문 수익이 1년 전에 비해 10% 감소해 시장 예상을 하회.

산업 건설 자재 유통업체 패스널(-6.85%)은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음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함.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비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매출 총이익률이 자체 목표치보다 낮게 나왔고 어려웠던 1분기를 지나 2분기 역시 도전적인 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킴.

투자의견 조정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소매업체 윌리엄스 소노마(+2.32%)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상승. 골드만삭스는 윌리엄스 소노마에 대해 현재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며 소매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주택 건설 업체 톨 브라더스(+0.85%), 풀티 그룹(+1.18%)은 에버코어 ISI가 투자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하며 상승. 에버코어는 양사 모두 거시경제 역풍을 경쟁사 대비 잘 견뎌낼 체력을 갖고 있다며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분석. DR 호턴(+1.18%)도 동반 강세.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2.44%)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한 가운데 하락. 골드만은 1분기 PC 수요 선반영 효과는 있겠지만 이후 메모리 가격 상승이 노트북과 컴퓨터 판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

이외 개별 특징주

하인즈 등을 생산하는 포장식품 회사 콘아그라 브랜즈(-4.41%)의 주가가 CEO 교체 소식을 알린 가운데 하락.

생명 공학 기업인 알로진 테라퓨틱스(+12.50%)는 회사의 CAR T 치료법이 림프종 환자의 암세포 제거에 있어 향상된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2상 데이터를 공개하며 급등.

레볼루션 메디신(+41.35%)은 췌장암 치료제 임상 시험 성공 소식에 급등. 경구용 치료제 다락손라십이 3상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혀. 해당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생존 기간은 13.2개월로 화학요법 환자의 6.7개월을 크게 상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장 중 하락 전환

미 국채 금리는 모든 만기물에서 하락(가격 상승).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되며 휴전이 위태로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레 상승하던 국채 금리는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잇달아 나오며 장 중 하락 전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8bp 하락한 3.783%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2bp 하락한 4.297%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1.4bp 하락한 4.900%를 기록.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70% 내외로 반영. 전날에 비해 5%p 가량 하락. 25bp 인하 베팅은 20% 초반대에서 26%대 수준으로 상승.

달러 가치 6거래일 연속 하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6거래일 연속 하락. 주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노 딜'로 끝난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한편 오전 중 달러도 강세를 보임. 다만 헝가리가 유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유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 소식과 함께 유가가 상승폭을 줄이자 이에 연동해 장 중 하락 반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399로 전장 대비 0.28%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0.27% 상승한 1.176달러를 기록. 헝가리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리한 머저르 페테르 티서당 대표는 이 날 자신의 정부가 경제 점검 이후 유로 도입 일정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함.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도 달러 대비 3% 이상 강세.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489.30원 대비 6.60원 하락한 1,482.70원에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1,478.60원을 기록.

국제유가 장 중 오름폭 축소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대폭 축소해 마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이후 양측이 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거래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5달러를 상회하기도. 미국이 예고한대로 현지시각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이란을 오가는 선박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도 유가 상승세를 떠받침. 다만 미국 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미 미국과 이란 간 접촉이 계속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CBS와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비슷한 결의 소식을 전함.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

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임. 이에 WTI는 오름폭을 축소해 2.6% 상승한 배럴당 99.08달러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